



## 박종환 총재 APLFD 회의 참석... 자유민주주의 유대 다져

### 대표단 말레이시아지부 순방, 싱가포르지부 결성 추진 등



◇박종환 총재(앞줄 맨 왼쪽)를 비롯한 APLFD 회원국 대표단이 원탁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자총 대표단이 12월 7~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APLFD)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박종환 총재와 이영석 서울지부 회장, 박노환 비서실장은 12월 9일 쿠알라룸푸르 페더럴 호텔에서 열린 APLFD 국제회의에 참석, APLFD 회원 15개국 대표단 관계자들과 우의를 다지며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서의 유대를 가졌다.

이날 박종환 총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한반도의 변화가 지구촌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자총 대표단은 12월 8일 말레이시아지부를 방문해 조직간부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2월 10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싱가포르지부 결성준비위원회 회의와 유관 한인단체장 간담회를 펼쳤다.

###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 발족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12월 6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김평환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앙운영위원과 본부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자총은 박종환 총재를 단장으로 한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산림청과 공동으로 북한의 자연환경 회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정치중립 실천 다짐대회' 등 개최

#### 동광기연 연수원서 사무처 직원 100여 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11월 27~2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동광기연 고성연수원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김평환 사무총장 및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치 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 사무처 직원 워크숍을 겸했다.

이번 대회는 특강, 정치중립 실천 결의문 채택, 대화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COVER STORY

## G2시대 한국의 선택은?

미·중 패권다툼 경제 넘어 군사면으로 확대  
위대한 중국 부활 '중국몽' 꿈꿔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유는 글로벌 패권 다툼

- 전인범칼럼**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과제 | 전인범
- 사회비평** 냉면 목구멍 그리고 자본주의 | 신중섭
- 문화와 사회** 일본문화개방 20년 풍속도 | 이근미
- 여의도풍향계** 다사다난한 2018 여의도... 창당·분당·합당 등 | 정도원
- 집중분석**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에 찬반의견 팽팽 | 김창남
- 포커스**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 | 김열수
- 초점분석** 북한은 '칭송' 받기에 아직 '너무 먼 당신' | 안찬일
- 시사이슈** 비혼·초저출산 시대 우리가 갈 길은? | 이미숙

- 베이징 리포트** 중국 내 '北 호조론' VS. '北 기조론' 논쟁
- 글로벌&한반도** 1차대전 종전 100주년 맞아 미-EU 안보갈등
- 인문역사기행** 삼별초의 요새 진도 용장산성
- 세계는 지금** 미국의 INF조약 탈퇴

• 편집실 ☎ 070-7122-8042

